

최근 패션연구에 나타난 젠 스타일 의상연구

김진형*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대학원생)

양취경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젠(Zen)이라는 것은 선의 서양발음이며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을 바라본 것으로서 개인의 자각과 명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과 우주의 근본실체를 파악하고 생과 사를 초월하여 우주의 원리를 터득하고 신통의 경지인 깨달음에 이르는 무신론적 종교이며 철학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사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제공받았지만 그에 따르는 많은 폐해들이 나타났다. 공장제 대량생산, 기계화는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고 인간성의 황폐화와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인간은 생산활동을 통해 더 이상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기술결정론의 흐름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더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기말적 불안과 함께 기계화, 정보화가 이룩한 표준화된 삶에 대한 이의를 가진 현대인들은 새로운 안식처로서 정적이면서 자연에 동화된 동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삶과 물질문명에 속박되었던 정신세계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불교의 선사상이 선택되어 현대인의 삶에 대한 정신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역할로 일상생활에 수용, 확산되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도 인간존중의 시각에서 물질주의의 사고의 복잡함, 화려함, 과장됨을 벗어나 자연스럽고 절제된 단아한 동양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패션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동양의 선 미학을 표현하는 젠 스타일이 나타나 서구의 생활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패션에 나타난 젠 스타일은 내적의미에서는 일체의 외적인 형식을 버리고 본래의 자기에게 돌아가는 자유로운 무형식의 상태,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멋있는 세계, 완전을 가로지르는 파격, 즉 완전성을 초월한 완전 이상의 표현이며 외적으로는 의복의 본질적 기능해체, 위치의 전위, 지극히 절제된 색채와 간결한 라인이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고는 인간성 부재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양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해 온 삶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젠 스타일의 특성을 정리하면 형태미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무형식의 상태로 완전성을 초월한 내적 의미와 균형과 대칭을 벗어난 비구조적인 실루엣과 의복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을 해체하고 새로운 행태를 제시한 것이다. 절제미는 공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물질적 절제에 대한 의미의 빈곤미와 간소함에 대한 의미로서의 무장식, 무색상의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자연미는 자연에 대한 회귀의식으로써 자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연에 동화된 삶을 추구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의 세계를 표현하는 자연미의 내적 의미와 자연친화적 소재, 자연적 색상으로 구성된 것이다.